

목포 원도심 골목길서 마을축제

나무숲 '낭만골목길 목원아트페스티벌' 내달 1일 개막 담벼락 시네마·아트마켓 등 4개 테마 20여개 프로그램

목포 원도심인 목원동이 간직하고 있는 골목길과 '낭만골목길 목원아트페스티벌' 자원을 테마로 지역주민과 예술가가 공동으로 기획한 참여형 마을축제가 열린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이사장 박일정)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목원동 불종대와 북교동 성당 일대 골목길에서 '2021 낭만골목길 목원아트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번 축제는 ▲골목 in 공공미술 '빛나는 골목길' ▲기획전시 '새 자산어보' ▲됐다! 낭만골목 페스티벌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4가지 테마로 20여건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골목 in 공공미술 '빛나는 골목길'은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예술로 채우는 설치미술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채색한 나무물고기로 마을의 골목길을 꾸민다.

기획전시 '새 자산어보'는 손암 정약전 선생이 유배 중에 흑산도 연안의 해양생태를 다룬 저술서인 '자산어보'를 모티브로 다도해를 품고 있는 항구도시 목포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예술작품이 전시된다.

마을주민들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됐다! 낭만골목 페스티벌'은 10월 9일, 북교동 성당 옆 골목길에서 열린다.



지역의 예술공방과 독립서점이 진행하는 플리마켓과 예술체험은 물론 국악, 클래식, 무용,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축제가 열리는 12일 동안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목포와 목원동이 뿜내는 아트상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됐다! 목원상점'과 동네의 풍경을 색칠해 엽서를 만드는 체험 '우리동네 컬러링', 페스티벌이 열리는 주요공간을 돌아보며 스탬프를 찍으면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낭만골목길 스탬프투어'도 함께 운영된다.

어두운 골목길의 담벼락에 목포를 소재로 한 영화와 영상을 만날 수 있는 '담벼락 시네마'도 기대된다.

'2021 낭만골목길 목원아트페스티벌'을 기획한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의 박일정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목원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각예술전문단체로서 주민의 생활공간을 예술로 변화시키고 지역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가 열리는 목원동 골목길 구간은 차범석, 김현, 김우진, 박화성을 배출한 목포의 대표적 인 문화공간으로 행사기간 중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다양한 미술작품 감상과 포토존 제공을 통해 선선한 가을밤의 골목길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예술협동조합 나무숲은 2015년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목포와 전남의 예술인과 시민 등 180여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놀래라! 신안 병풍도 화장실

통유리 공간서 맨드라미 향연 감상... '멍 때리기' 카페도

"신안 병풍도 '놀래라 화장실' 가보셨나요?" 코로나19 장기화와 거리두기에도 이색적인 화장실이 지역의 명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신안 병풍도 놀래라 화장실(사진)은 내부가 보이지 않는 통유리 너머 사방으로 펼쳐진 맨드라미 꽃의 향연과 바다의 풍광을 만나볼 수 있다.

바로 옆 무인카페는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멍 때리기'에 최적의 장소다.

중도면의 작은 섬 병풍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황무지를 일군 형형색색의 맨드라미 꽃이 11ha에 걸쳐 장관을 연출한다.

맨드라미 꽃섬, 병풍도에서 노둑길을 따라 기점·소악도는 12사도 작은 예배당이 조성돼

한국의 섬티아고라 불린다.

지난 2017년 '가고싶은 섬'으로 지정돼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아성찰의 공간인 작은 예배당이 들어섰다.

기적의 순례길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찾는 이들이 늘면서 언택트 시대 힐링 장소로 손꼽힌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이면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병풍도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 등 자연의 신비함이 숨겨져 있다.

특히 다음달 1~10일까지 '2021 섬 맨드라미 축제'가 랜선으로 열릴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하림·정인과 해변으로 음악 여행 가요

해남군, 내달 2일 오시아노 해변서 뷰티풀 캠핑 콘서트...온·오프라인 진행

아름다운 석양으로 유명한 해남의 오시아노 해변에서 치유와 행복의 뮤직페스티벌이 열린다.

해남군은 다음달 2일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뷰티풀(beauty-fall) 캠핑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캠핑과 관련된 토크쇼와 음악공연으로 진행되며, 하림과 정인, 조연호, 박상돈 등 우리나라 대표 감성파 음악인들이 출연한다.

노을빛이 물들기 시작하는 오후 6시30분부터 90분간 열리는 콘서트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캠핑과 야외 음악공연을 결합해 치유와 힐링의 분위기가 가득한 오시아노만의 상징성있는 관광 콘텐츠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람은 49명에 한하며, 해남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연을 중계한다.

현장 참여를 원하는 경우 카카오톡 채널(해남 오시아노 뷰티풀캠핑콘서트)을 통해 27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는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한국의 페블비치'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해변 경관에 골프장, 캠핑장 등



왼쪽부터 음악인 박상돈, 조연호, 정인, 하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해에 거점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난 1992년 507만3000여㎡ 규모 관광단지 지정됐으나 개발이 지체돼 오다가 최근 기반조성을 위한 국비확보와 한국관광공사 리조트호텔 건립 등으로 활기를 찾고 있다.

또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미연결 구간인 해남 화

원-신안 압해간 도로공사가 본격 추진되면서 인근 관광지를 연계하는 서남권 관광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 화원면 일원은 서남해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도로와 180도 조망이 가능한 나조 등으로 유명하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내달 12일까지

영암군이 젊고 활력있는 영암을 만들기 위한 '2021년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

영암군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고민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기획했다.

공모전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암군민이면 참가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인구·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제출서류는 영암군 홈페이지

에 공고된 공고문에 첨부된 공모제안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 제출 또는 영암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10~11월 중 제안된 안을 심사, 11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청년들이 찾는 영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이디어를 공모 중에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해 주시면,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

영광 지내들 영농법인 '모두에 마을 기업' 선정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2021년 '모두에(愛) 마을 기업'에 영광 지내들 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모두에 마을기업 선정은 전국의 가파른 마을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선정으로 지내들은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보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비로 1억원을 지원받는다.

지내들은 지난 2013년 9명의 마을 주민이 출

자해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를 기점으로 2014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신규지정, 2015년 재지정, 2019년 고도화를 거쳤으며, 지난해 전국 우수 마을기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주민 참여자가 21명으로 늘었다.

보리산읍특구 지역에서 보리 계약재배 및 수매와 함께 1~2차 상품개발 등을 통해 지난해 매출 6억2000만원을 달성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